"가슴에는 원광을, 눈은 세계로"

진실(참)
용감(힘)
봉사(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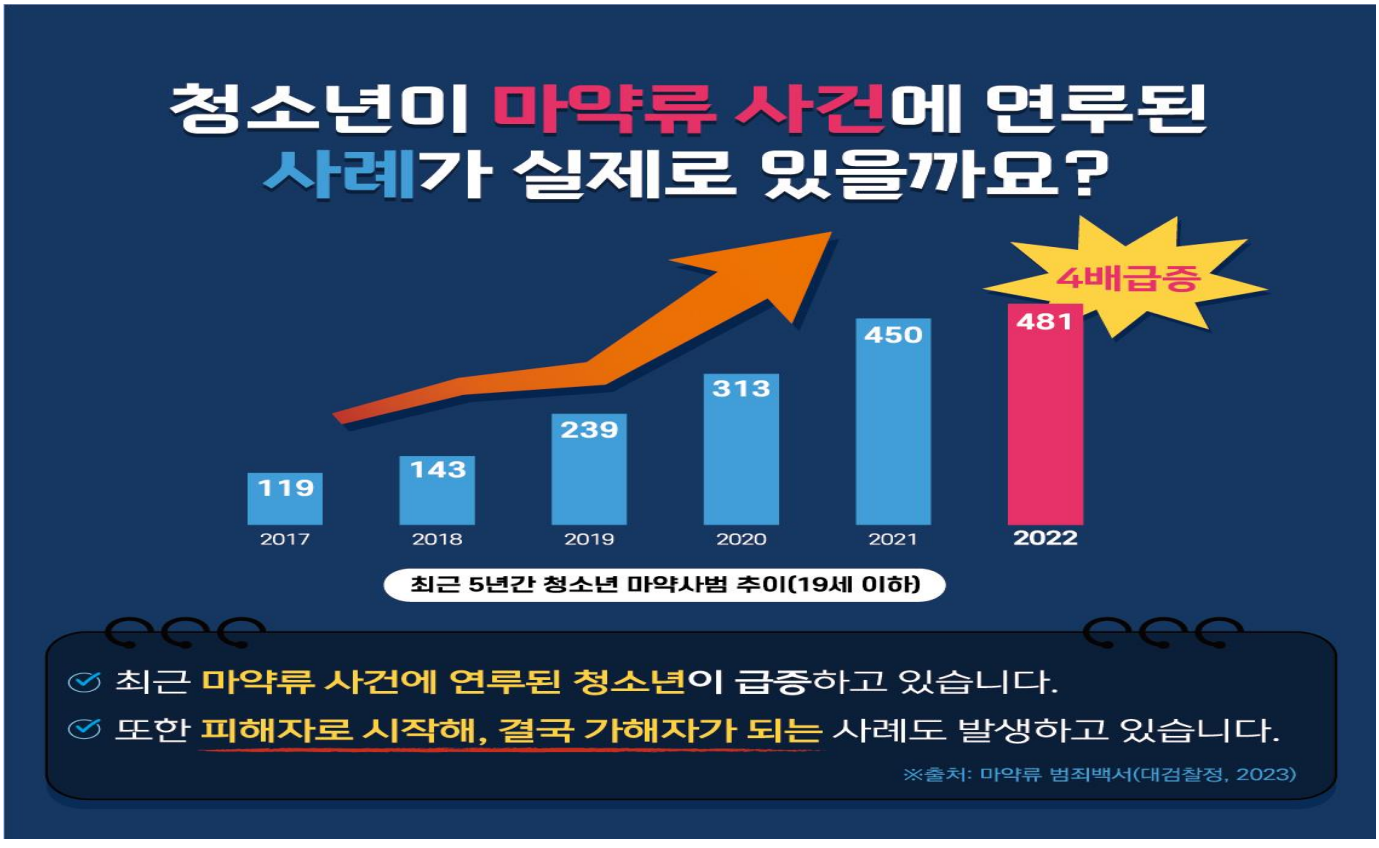
가정 통신문

http://www.wonkwang.hs.kr

원 광 고 등 학 교
전북 익산시 무왕로 31길 139
TEL (063) 832-6612
FAX (063) 832-6296

담당부서	보건실	담당자	이OO	연락처	063-830-1414

제 2023- 165호



사례 1

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후 사용한 청소년

- 의료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은 **반드시 환자 본인이 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하고, 정해진 양을 기간 내 사용**해야 합니다.
- 그러나! 의료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인줄 모르고, **인터넷에 올라온 판매 글만 보고 구매하여 사용**한 청소년이 있습니다
- 이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거래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※출처: 'SNS 등서 마약류 '나비약' 불법거래한 102명... 무더기 송치', 메디컬투데이(2023. 07. 29.)

사례 2

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, 중독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청소년

- 판매상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를 사용하고, **중독이 된 청소년은 이후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.**
- **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깊이 발을 담근 청소년**은 뒤늦게 후회하였으나,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.
- 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,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

※출처: '호기심에서 시작... 직접 매수 • 판매까지, 고교생 파고드는 마약', 서울경제(2023. 05. 06.)

사례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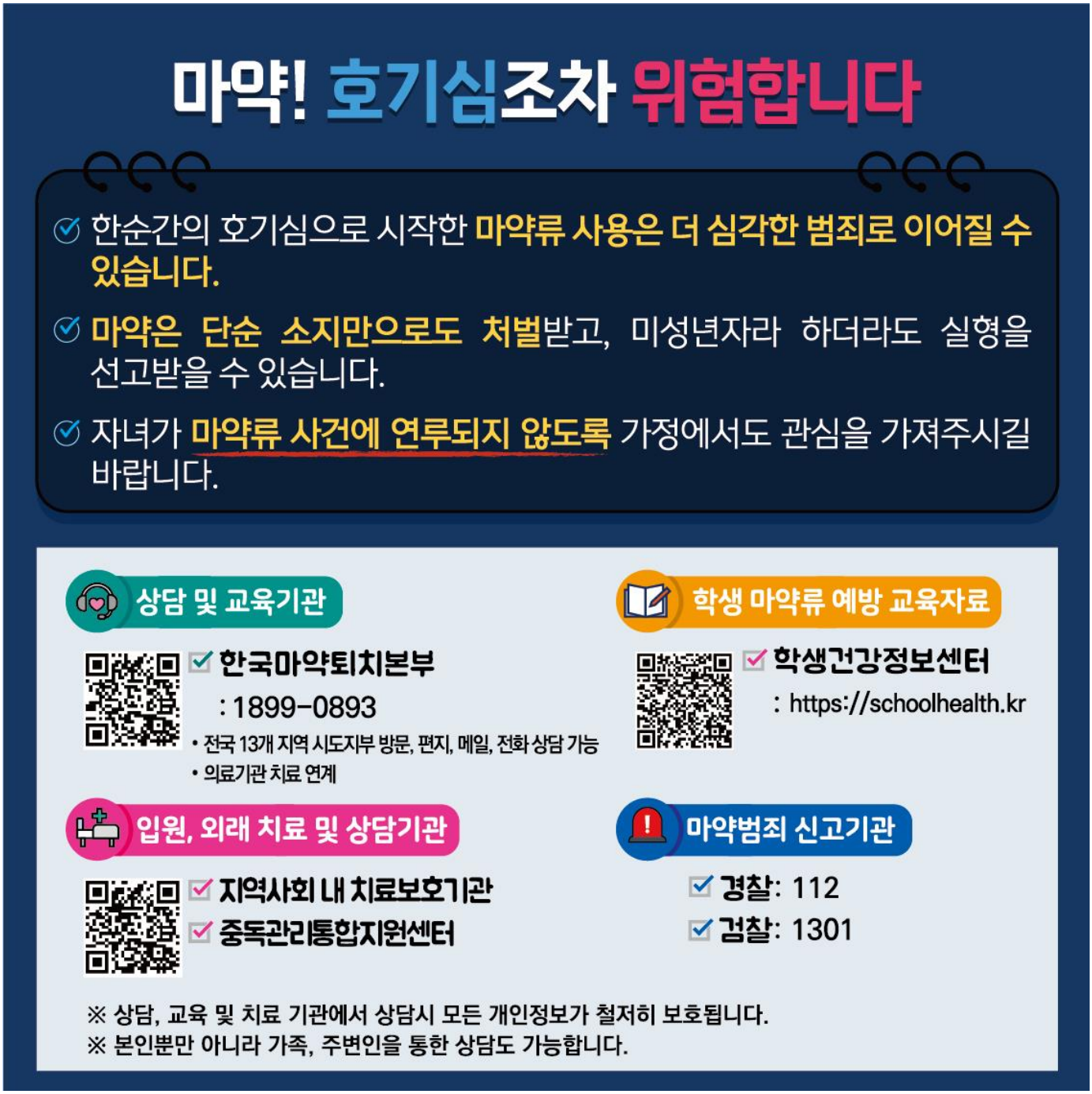
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청소년

- 특정 질환(말기 암 등)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**성인만이 처방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, 불법으로 처방**받아 사용한 청소년이 있습니다.
- 결국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공원, 상가 화장실, 심지어 학교 내에서 투약하기도 했습니다.
- 연루된 청소년 **모두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위반으로 처벌**을 받았고, 일부 청소년은 **심각한 중독증상으로 치료**를 받았습니다.

※출처: '의사가 처방했는데 뭐 어때요... 마약에 빠진 아이들', 서울신문(2021. 10. 31.)

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는 불법입니다

- 특히 판매자가 마약류인 것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**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!**
- 구매 후 **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**받습니다.



2023. 11. 06.

원 광 고 등 학 교 장